

교사불자聯, 제주문화 체험

8월 2~5일 제주 법성사에서 여름수련회 개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여름수련회에 참가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강영철)는 8월 2~5일 제주 법성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탐라문화의 이해와 제주 문화 답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교사불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의 ‘절 수행과 사무량심 그리고 부모은중경’이라는 주제 법문과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행복한 교사와 자아명상법’ 강의, 반야사 주지 수상 스님의 ‘불교의 웰다잉과 호스피스활동’ 강의 등을 경험했다.

이밖에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등 제주지역 전문가들이 제주 지역 문화 및 자연유산을 답사하며 설명하는 ‘제주의 자연유산과 신화’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이완국 애월초 교사의 ‘웃음과 마음 챙김을 통한 학생지도’ 강의, 조한곤 파라

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의 ‘파라미타의 조지와 활동’ 강의 등이 진행됐다.

한편 수련회 입재식에서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박경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교화부장이 조계종총무원장 상을, 문태영 전 제주교원불자회장과 강정인 경남교원불자회 회원이 조계종포교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강영철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은 입재식 인사말에서 “교사불자연합회 회원 모두가 신심을 돈독히 하고 한 마음이 돼 학교 현장에서 이 땅의 어린 벗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묘음(妙音)보살이 되어 한다”면서 “이번 연수를 챙기 삼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 밭을 갈고 부처님 가르침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 불국정토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내는 기자

꿈이 없다고요? NO! ‘Dreams Come True’

국제선센터, 10~11일 첫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

“I pray comfort, happiness, and peacefulness. I pray that all living being be comfortable, happy, and peaceful.(나는 안락, 행복, 그리고 평화로 기도합니다. 나는 일체 만물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이 자비명상 기도문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읽어 내려간다. 나와 내 가족, 친구, 만유 중생이 행복하고 걱정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문이다. 다만 언어가 다르다.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내 템플스테이 체험관에서 첫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영어가 가능한 중고등학생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템플스테이는 지도법사 천조 스님을 비롯해 탈프 발다사리 前경희대 경영대 교수, 김창민 서울시립대 전자공학과 교수 등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교사로 참여했다.

프로그램도 주제토론, 인생그래프 그리기, 외국인 수행자들과의 담마토크, 행복명상, 선요가, 소금만다라,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 확립과 불교 수행과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차게 꾸며졌다.

지도법사 천조 스님은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에 아이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면서 “영어를 통한 명상과 불교문화체험으로 청소년 인성과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게 됐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은 소금 만다라와 인생그래프 그리기. 청소년들은 10가지 색을 전부 사용해 만다라



매 프로그램 시작된 영어 템플스테이 참가 학생들은 5분 집중 명상을 통해 집중력을 키웠다.



국제선센터 첫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 참가한 학생들이 소금 만다라를 만들고 있다.

전·현직 대학교수 등 멘토로 청소년 10여 명 자아 찾기 불교문화, 영어로 배워 '눈길' 인생 그래프 그리기 인기높아

를 조별로 함께 채우며 협동심과 집중력, 창의력을 길렀다. 모두 채우고 난 후에는 이를 한데 뒤섞으며 충분한 사유의 시간도 가졌다.

만다라를 섞는 아이들에게 이내 지도법사 스님이 “기분이 어떨까”는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은 “삶이 공허하다(Life is empty), 슬프다(sad)”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놨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상황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인생그래프 그리기’는 청소년부터 지도법사, 스태프까지 전부 참여해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겪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사유하고 미래의 희망하는

꿈들을 이야기했다.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고등학교 남학생의 이야기는 절절했다.

“중학생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에서 말하는 불량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공부도 모두 싫었습니다. 2년 정도 방황하다가 이제는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전화와 메일은 이어졌습니다. 악연을 끊기 위해 전화도 4번이나 바꾸었고, 지금은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마곡사에서 2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고, 내 자신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어 템플스테이도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참가자들의 인생 스토리를 모두 들은 후 지도법사 천조 스님은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링컨은 대통령이라는 단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을 실패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출가하기 전에도 출가하고 나서도 처음 몇 년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겼고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노력의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목표가 있기에 즐겁습니다. 꿈이 생기면 지긋지긋한 공부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꿈은 이뤄집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템플스테이였지만 진솔한 대화와 토론, 명상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천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실제 프로그램의 참가 청소년들의 반응도 높았다.

안해주(여, 18) 학생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행복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 같은 템플스테이는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 같다. 즐겁고, 진실했으며, 진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지도법사 천조 스님은 “자신의 방을 정리정돈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일상 생활이 수행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며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고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집중수행 회향

간화선 보급 위해 학생 10명에 장학금 전달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8월 10~16일 7일간 간화선 집중수행을 실시했다. 집중수행에는 스님과 재가자를 비롯해 중국·노르웨이에서 온 외국인 5명 등 8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수불 스님에게 화두를 받은 뒤 매일 1시간씩 법문을 듣고 개인점검을 받으며 용맹정진 했다.

‘간화선진흥장학’ 전달식을 갖고, 참가자 가운데 10명에게 30~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국대국제선센터는 “학업과 취업준비로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간화선을 보급해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설계하고 지혜를 갖춘 생활인이 되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내는 기자

조계사 불교상담 전문교육 실시

9월 3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조계사(주지 도문)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15기 불교상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원봉사자의 마음가짐과 자세 △김인하 소장(성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소통과 경청 △최훈동 원장의 현대인의 이상 심리와 불교적 치료법 △오종희 kt 컨설턴트의 마음을 전하는 대화응대 등을 진행한다.

조계사 기본교육 이수자 또는 불교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02)768-8600 이내는 기자

불교계 첫 ‘B-Boy’ 대회 열린다

은정진흥원, 9월 7일 동국대서... 대상 200만원 시상

단체팀 부문 30일까지 접수

세계대회 개최가 최종 목표

불교계 첫 공식 ‘B-Boy’ 대회가 열린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이하 은정진흥원)은 “청소년 문화 진흥을 위해 ‘제1회 은정 비보이(B-Boy) 그랑프

리’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은정, 꿈을 나누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9월 7일 동국대 본관 중앙당에서 열리며, 제5회 나란다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기간 청소년 댄스 문화인 ‘B-Boy’ 대회는 포교 차원에서 사찰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개최된 적은 있지만 대형 단체가 정기 대회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eunjung.or.kr)에서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분 이내의 동영상자료와 더불어 이메일(bulgyo201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B-BOY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동등학력자 및 대안학생 가능)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7인으로 구성된 단체 퍼포먼스 팀이어야 한다.

참가신청서와 동영상자료로 평가되는 최종 우승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최우수상 1팀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팀 각 50만원, 장려상 3팀 각 2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은정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한국사회에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빈약하다”며 “청소년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B-Boy’ 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대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02)515-9351

신종일 기자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 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증릉

◆공연내용 : 선무도·승군의 검무·화랑의 봉술·아수라의 바라무·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힐링살풀이·불교전통무용·민요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공연관람·공양(식사)

◆단체공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선무도공연◆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원효성사 성지 혈사(穴寺) 12처 석굴사원 골굴사에서 범종 도안(디자인)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굴속에 들어 기도를 하니 일만 근심이 사라지고, 마애여래불의 서광이 해마다 기적을 나뉜다”라 기록된 신라 함월산 기림사사적기(1740)나 겸재 정선의 ‘골굴석굴도’, 정시환의 ‘산중일기’에 보이는 골굴사는 15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천생 석굴을 갖춘 아름다운 기도 도량입니다.

선무도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국제포교도량 골굴사에서는 원효성사의 일심·화쟁 사상을 담아 세계인의 평화를 기원하는 범종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종의 도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재능 있는 불자 예술가의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골굴사 천년 미래의 꿈을 장인의 예술혼으로 승화시킬 범종 도안에 큰 서원을 품은, 뜻 있는 예술가의 열정과 재능을 기다립니다.

■도안의 내용 :
신라 천년을 품은 골굴사의 역사, 원효사상, 선무도, 21세기 신 문화콘텐츠를 지향하는 메시지

문의 054)744-1689, 745-0246
대한불교조계종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원효성사 범종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